

광주 대표 부촌 ‘봉남’ 아파트 실거래 최고가 싹쓸이

〈봉선동 남쪽〉

1년간 거래 상위 최고액 ‘톱 10’

더셀·한국아텔리움 등 8곳 차지

11위~30위까지 독점 부유층 거주

풍부한 교육 인프라에 수요 몰려

광주의 대표적 부촌(富村)인 ‘봉남(봉선동 남쪽)’지역이 최근 1년간 아파트 실거래 최고가 톱 10을 사실상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8월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최근 1년간 광주지역 아파트 실거래 결과, 매매 상위 최고액 1위부터 10위까지 8곳이 일명 ‘봉남’ 지역으로 집계됐다.

1위는 봉선동 더셀2단지로 전용면적 187.2866㎡에 2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2위는 서구 농성동 더리미티드 (269.5600㎡)로 20억6천520만원에 팔렸다.

3,4위는 봉선동 한국아텔리움1단지 (192.6903㎡)로 각각 19억8천500만원, 19억5천만원에 거래됐다.

공동 5위는 광산구 수완동 현진에버빌1단지 (169.9400㎡), 봉선동 한국아텔리움 1단지 (192.6903㎡)로 18억5천만원에 팔렸다.

7, 8, 9위는 봉선동 쌍용스윗하움으로 18억1천만원 (155.6351㎡), 17억8천500만원 (169.2810㎡), 1

7억4천만원 (169.2810㎡)에 거래됐다.

10위는 봉선동 한국아텔리움 1단지 (192.6903㎡)로 17억원에 팔렸다.

11위부터 30위권까지도 봉남 지역이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나 광주지역 대표 부촌임을 입증했다. 이처럼 비싼 거래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매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풍부한 교육 인프라 및 특정업군 거주 등 영향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 최고 학군으로 손꼽히는 봉남 지역은 사립 명문고와 주요 유명학원들이 밀집돼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일찍이 이 지역 일대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대학 입시에 특화된 사교육 열풍으로 봉선동 일대 아파트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의사, 법조인, 교수 등 부유한 특정 직업군이 이 지역에 다수 거주하면서 높은 매매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부유한 동네로 일명 광주의 강남 ‘봉남’으로 불리는 이유다.

광주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2017~2018년께 아파트 대출 저금리 등 영향으로 봉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경기 불황에도 좀처럼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며 “입시학원 밀집 등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비롯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 봉남에 살다보니 높은 매매 거래가를 형성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르브아시스 팝업 광주신세계백화점 본관 5층 스웬&리조트웨어 브랜드 ‘르브아시스’ 매장에서 고객들이 수영복을 살펴보고 있다. 르브아시스는 한국 브랜드로 스티지가 최소화된 봉제기법과 우아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수영복 라인으로 고급스럽지만 울드하지 않게 풀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지역 수해 피해 기업 지원

노란우산 무이자 대출·공제금 지급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금 지급 및 무이자 재해대출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제출하면 공제금 지급은 물론 최대 2천만원 한도의 2년간 무이자 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

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실제 광주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A씨는 기존 일반대출 1천900만원을 이번 재해대출로 전환하면서 월별 이자 부담을 크게 줄였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공제금을 활용해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며 위기를 넘겼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수해 피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리에 2%포인트(p)를 인하해주는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수해 피해로 직접적인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 중소기업공제금 고객센터(1668-338

4),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경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재난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재기를 돕는 제도로, 복리이자·압류금지 공제금 지급, 소득공제,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가입자의 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금융 제도다.

/안태호 기자

목포고용노동지청, 산업재해 예방 현장 점검

고위험 사업장 371개소 불시 감독

추락·끼임 등 후진국형 5대 산재 대상

목포고용노동지청은 3일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남 소재 사업장을 방문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가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자 전국 약 2만6천개 고위험 사업장(목포지청 관내 371개소)을 대상으로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정하고 불시 감독 등 밀착 관리하는 사업이다.

점검 대상은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이른바 후진국형 5대 산재 유형과 폭염 등 계절 취약 위험 요인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게차와 컨베이어 등 유해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조치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노사 면담을 통해 현장 안전활동 참여



목포고용노동지청 관계자들이 최근 해남소재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펼쳤다. <목포고용노동지청 제공>

를 독려하고 폭염 예방 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이재희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고위험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철저히 파악하고 즉시 개선해 현장에서 제감할 수 있는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폭염대비 건설현장 안전소통 간담회 시행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3일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폭염 대비 주택건설현장을 찾아 근로자와 안전소통 간담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근로환경 점검과 근로자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무더위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옥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수칙 ▲혹서기 건설현장 사고 사례, 행동요령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이온음료, 안전키트 등 혹서기 물품을 지원했으며 빈틈없는 사

업장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LH 광주전남지역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안전문화행사 등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여수 앞바다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한

교동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일

- 이용시간 : 05시 ~ 14시
- 휴 무 일 : 둘째, 넷째 일요일

여수 교동시장 풍물거리

여수 교동시장 입구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여수시 YEOSU SI 광고문의 : 062)650-2099